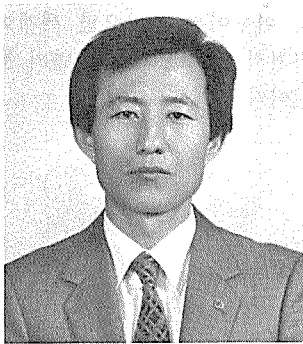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현황과 촉진방안



신 금 식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화사업부장

1. 정보화 지원 개요

산업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 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도 바뀌어가고 있다.

흔히 생산의 4대 요소를 4M이라 하여 사람(Man), 설비(Machin), 자본(Money), 방법(Method)을 일컫는다. 지금까지는 이들 4요소를 여하히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가가 기업의 과제였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든 기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의 4요소를 잘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가 지구촌화되어 가고 기업환경이 하루가 달라지는 이 시대에는 이런 4요소 외에도 더 많은 요소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기업의 문화, 기술, 정보, 서비스, 유연성 등이 이들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 기업의 중요 자원으로 인식하는 중소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설사 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처하는 능력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분명 정보화 사회가 우리 눈에 전개되고 있음에도 정보화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89년부터 중소기업의 정보화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과 개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 사업 유형별 지원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

1) 중소기업 정보은행 운영

'93년 7월에 개소한 중소기업 정보은행은 기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 컴퓨터에 수록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개인용 컴퓨터를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정보, 기업체정보, 중소기업 관련법률 정보, 국산화 개발 대상고시 품목, 한국표

중산업분류정보, 연수정보, 전문가 정보, ISO-9000정보, UR, GR정보 등 14종에 이른다.

특히 전문가 정보는 국내 1,200여 전문가를 분야별로 수록하여 기업에서 직접 검색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연수정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등 8개 연수기관의 연수내용을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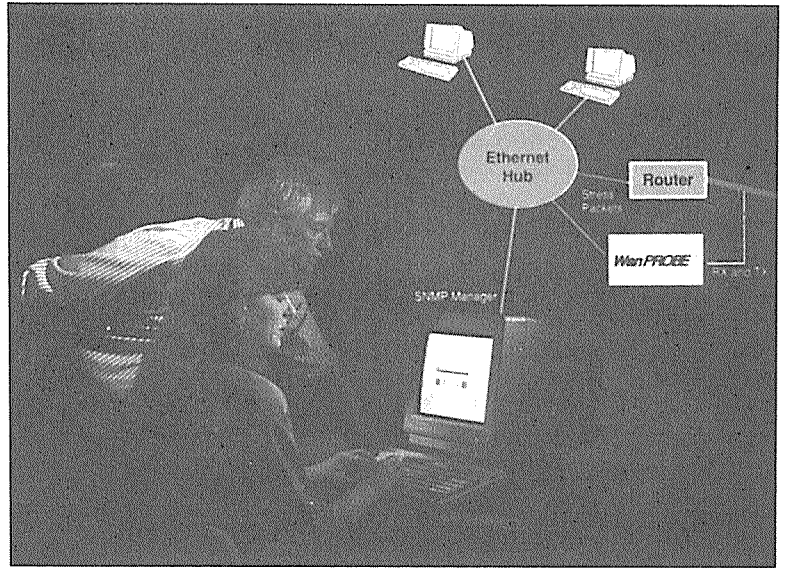
중소기업 정보회원은 중소기업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구축된 자료를 PC에 접속된 프린터나 FAX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화 인력양성 사업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스템공학연구소 등 15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94년까지 18,348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PC 실무운용 등 9개과정을 개설하여 '94년까지 1,714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였다.

3) S/W 창업보육 사업

S/W 업체의 창업을 촉진시키고자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예비 창업자 및 신규 창업자를 발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일정기간 동안 작업장 제공은 물론 컴퓨터시스템, 회의실의 무료이용,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또한 입주자들은 중진공의 경영, 기술전문가로부터 산업계의 동향 등 기술정보를



제공받으며 최신 경영기법 등 경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를 받아 경영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된다.

'94년에 옥돌인더스 등 10개업체를 중진공 사무실에 입주시켜 운영 중에 있다.

3. 자금지원 사업

1) 공동정보화 사업

경영환경이 유사한 업체들 또는 수·발주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전산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거나, 자동화 설비를 공동 활용하고자 할때 필요한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자동화설비 구입비 등 시설 및 운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년에 18건 4,62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2) 정보화 우수업체 지정 사업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에 모델이 될 만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를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선정, 자금 및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4년에 25개사에 6,57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금속이 68%, 전기전자분야가 16%, 섬유화학이 8%, 기타 8%이다.

3) 범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년에 53개사에 5,17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개발분야별로 지원현황을 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 26건으로 49%,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이 18건으로 34%,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이 9건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4) 데이터 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정보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중

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년에 구축한 데이터 베이스로는 해외 기업정보, 해상운송정보, 무역정보, 중소기업 수·발주 데이터 베이스 등이 있으며 6개사에 903백만원을 지원했다.

5) 정보화 지원업체 육성 사업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을 설계, 제작,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경영개선과 기술수준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전문개사로 육성시켜 정보화 기반을 조성케하는 사업으로 '94년에 15개사 2.65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89년부터 실시한 정보화사업 자금지원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정보화분야 지원을 포함하여 1,603개사 3,38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자금의 종류로는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금리는 년 6.5%~8%이다.

이러한 자금지원 사업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 각 지부를 통하여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4. 정보화 진단지도 사업

중소기업자가 전산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산전문가를 업체현장에 파견하여 직접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90년에 시작하여 '94년까지 378개사를 지도하였다.

'94년 지도업체를 지도분야별로 보면 전산화 추진계획 수립 등 경영관리 전산화분야가 79%로

제일 많고, CAD/CAM 분야가 12%, CIM 분야가 4%, S/W공학분야가 5%이다.

5. 연계생산 지원사업

기업에서는 고가의 설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 용도를 찾지 못해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시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생산능력 이상으로 주문을 받았을 때 신규로 설비를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다를 경우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각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설비, 인력 등 생산능력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국내·외 업체에 수·발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연계생산 지원사업이라 한다.

이는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적으로 과잉투자를 예방함은 물론 설비투자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창업 준비자가 타기업의 설비나 인력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생산해 볼 수 있으므로 설비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없이 성공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신규시장 개척을 돕고 외국의 바이어나 대기업의 발주를 돕기위해 수·발주 요청서를 받아 공단이 직접 알선할 예정이다.

금년에 500개 업체의 생산능력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6.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방안

중소기업 정보화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경영 활동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사무능률을 높이고 경영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과 PC통신 등 외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기업경영에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사전준비와 인력, 투자비가 필요하지만 후자는 PC를 설치하여 공중 통신망과 연결하는 것으로 간단히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컴퓨터화된 자동화 설비에 의해 구축하는 생산시스템, 물류시스템 등도 정보화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의 여건이 허락치 않아 아직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선 PC를 설치하여 공중통신망과 연결하여 외부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익힌다면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친숙해져 기업정보화에 한발 다가설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한시간 정도 취미삼아 컴퓨터에 앉아 있는다면

기업경영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떠오를 것이다.

우리같은 중소기업이 정보화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까 망설이지 말고 우선 PC정도는 구입하여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

최근에는 컴퓨터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능도 좋아져서 큰 부담없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요즘은 농민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도시의 농산물 가격을 알아 본 후 출하시기를 맞춰 적절한 가격을 받는 등 성공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물며 조직을 갖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야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가장 쉬운 분야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간다면 정보화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요 크게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제 컴퓨터는 대기업이나 신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며 기업의 대소, 업종에 관계없이 연령을 초월하여 우리와 친숙해질 수 있을 때 정보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정보화 투자에는 실패가 없다.

기업이 정보화 추진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경영자가 컴맹이라면 정보화 투자에 자신을 가질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기업이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마치 자식을 학교에 보낼 것인가 말것인가로 망설이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이다. 정보화에 대한 투자는 교육에 대한 투자 만큼 중요하고 절실하다.

같은 학교 같은 선생 밑에서 배우도 우등생이 있고 낙제생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낙제생이라고 해서 교육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설사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보화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여도 전혀 시도조차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면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남을 확율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보화를 준비하지 않고 컴퓨터를 배우지 않아도 정보화 사회는 성큼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하는 자로 살아남을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자여 지금 당신의 책상에는 PC가 켜져 있습니까?

2) 중진공을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정보화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

로 정보화 인력과 자금부족을 드는 기업이 많다.

기업은 경영에 필요한 자원을 모두 갖고 있을 수도 없으며 또한 갖고 있을 필요도 없다.

외부의 경영자원을 잘 활용하면 적은 투자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일이다. 중소기업에 관한 거의 모든 시책을 집행하는 중진공의 사업을 이용한다면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정보화 인력이 없다면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시켜 양성할 수도 있고 개별 기업의 실제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지도받고 싶다면 중진공의 정보화 진단 지도를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으며 자금이 부족하다면 공단의 여러가지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추진코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수 있다.

7. '95년 정보화사업 중점 추진방향

1) 지속적 자금지원사업 확대

앞에서 소개한 공동 정보화사업, 정보화 우수업체 지정사업, 범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사업, 정보화 지원업체 육성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협동화 사업 참여업체, 수·발주 관계에 있는 업체, 제조업과 유통업을 연결하는 POS시스템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공동 정보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업체당 5억원 이하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정보화 지원업체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을 교육용, 게임용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자동화 엔지니어링 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95년에 정보화 지원자금으로 211억원을 우선 책정해 놓고 추이를 봐서 늘려 나갈 계획이다.

2) 중소기업 정보은행 서비스 강화

중소기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회원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회원을 금년내 6,000명 정도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총망라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제도 등 4종의 신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며, 우수제품 생산 중소기업 3,000여개사를 선정 영문으로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외국의 바이어에게 제공하여 수출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향후 정보은행을 외국의 전산망에 연결 국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해외에서 검색 가능 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3) 정보화 진단 지도사업의 확대 실시

중소기업이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운영중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 직접 해결해 주는 개별업체 진단 지도사업과 정보화 우수업체를

견학하여 벤치마킹 대상을 찾는 견학지도, 추진사례 발표 등 세미나 형태의 집합지도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해외정보화 우수업체 견학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해외 견학지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4) 소프트웨어 도서관 개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한곳에 모아 중소기업자가 직접 시현해보고 자사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금년중으로 안산에 소재한 중소기업 연수원에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화를 추진코자 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며 동시설은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된다.

용어해설

IC 카드 (IC card)

자기카드에 대해 IC 칩을 내장한 플라스틱 카드로 메모리만 내장한 것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함께 내장한 것이 있다.

자기 카드와 달리 다량의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

외에 카드 자체의 처리 능력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통신망과 연계, 향후 주민등록증과 개인 병상 기록, 의료보험증, 예금통장 등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한 서비스가 개발 중이다.